

한국 근대 초기 소규모 자급자족형 교과서 생태계 고찰

— 중국 교과서 생태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설금*

〈목 차〉

1. 들어가며
2. 본격적인 근대교육을 주도하는 정부
3. 관·민 협력의 교과서 편찬
4. 소규모 자급자족형 생태계
5. 나가며

1. 들어가며

근대 시기 한중 양국은 부국강병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였으며, 근대 국민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전통 교육을 근대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근대 학교의 신설과 근대 교과서의 보급으로 구체화되었다. 본고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인 한중 양국의 근대 교육발전사에 있어서 교과서 생산체계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세의 침략 위기 앞에서 한국의 지식인과 관리들은 근대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한국은 1883년에 이미 민간이 창립한 첫 근대 학교가 나타났다. 이후 1895년에 정부의 학제가 발표되고, 근대 교육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봉건왕조에서 공화정으로의 체제 전환, 황제정으로의 복귀 시도, 군웅할거와 내전, 근대 시기 중국 또한 엄청난 사건이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근대 교육은 정체가 퇴행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본고는 최초의 근대 교과서가 출현한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와 근대 교육이 시작되고 발전한 양상과 원인에 주목한다.¹⁾ 그리고 근대 교과서 생태계의 형성과 발전에서 그 단서를 찾

*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객원교수

1) 본고는 한중 양국 최초의 근대 교과서가 출현한 시점부터 교과서 쇠퇴기까지의 기간을 주요 연구범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1895년에서 1910년까지의 기간을, 중국은 1897-1937년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은 1910년부터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사립학교가 대대적으로 폐교되고 민간 교과서가 몰수되면서 근대 교육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한국 근대 교과서 연구의 마감 시

아보고자 한다.

근대 교과서 생태계에 관한 주요 개념은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 〈중국 근대 교과서 생태계 연구 - 인문 계열 교과서를 중심으로〉(2016)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필자는 중국 근대 교육의 지속적 성장 동력이 민간 주도의 교과서 생태계 구축에 있음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학위 논문에서 중국 교과서 생태계와 관련한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한국 근대 교과서와 교육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의 학위논문에서 다룬 기본 개념들과 교과서 생태계의 특성을, 한국의 상황을 고찰하면서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생태계란 본래 자연과학 용어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일련의 생명체군과 이들의 서식처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며,²⁾ 교과서 생태계란 교과서와 교과서를 매개로 하는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³⁾ 생태계적 관점의 연구는 여러 구성 요소들 사이 유기적 관계를 기초로 해당 체계 내지는 시스템의 변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그 요체가 있다.

교과서는 근대 교육의 이해당사자와 구성 요소들을 매개하고, 근대기획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교과서는 학제와 이념을 구현하는 實物이며, 그 상품적 속성은 교육 이해당사자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냈다.⁴⁾ 이와 같은 독특한 지위를 가지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근대 교육의 구조를 파악할 때, 우리는 근대 교육 각 요소들의 발전 양상과, 여러 요소들 사이 상호 관계 및 연관성을 풍부하게 고찰할 수 있다. 교과서 생태계의 관점으로 한중 양국 근대 교육을 연구하는 이유이다.

한중 근대 교육의 공통점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고, 자국을 보존하기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창립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지식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뿌리 내리고 있었으며, 완성도 높은 官吏 시스템을 경험한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교과서 생태계는 활성화된 교과서 시장을 기반으로, 학교의 운영자나 정부와는 무관한 대형 전문 민간출판사들이 출현해 교과서의 생산을 주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최초의 근대학교 신설 이후 한동안 자체적으로 저술한 교과서가 나타나지 않다가, 1895년 정부가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을 기점으로 정부·학회·개인이 각자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교과서를 편찬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은 완성도 높은 교과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국이 공화제로 전환

기를 1910년으로 정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우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을 연구의 마감 시기로 정한다. 국가가 전면적인 비상사태로 전환되고, 교과서 생태계의 발전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2) 줄고, 〈중국 근대 교과서 생태계 연구-인문 계열 교과서를 중심으로〉, 11쪽.

3) 줄고, 위의 글, 63쪽.

4) 줄고, 위의 글, 13쪽 참조.

되며 교과서 생태계가 한층 성숙될 무렵, 한국은 일본에 병탄되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한국의 근대 교과서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함에 중국적인 상황을 참고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교과서 심의기관이자 생산 주체이기도 했던 정부의 역할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정부 주도 하 관·민 협력의 교과서 생산구조를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교과서 주요 이해당사자들인 생산주체,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교과서 심의기관·생산자·소비자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교과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2. 본격적인 근대교육을 주도하는 정부

한국 근대 교육의 특징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관·민 협력의 양상을 보인 데 있다. 근대교육이 본격화된 1895년 전후 정부는 근대 학제를 반포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동시에 민간의 학교 창립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민간은 이에 호응하여 대대적인 민간학교 창설에 나섰다.

서세동점의 시기, 동아시아 각국은 생존을 위해 부국강병을 모색하였다. 전통적인 사교방식·생활양식·행정체제는 생존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정치·군사·행정·외교 등 사회체제 전반이 서구를 모방하고 따라 잡아야만 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 교육 방식으로는 근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었다. 교육의 근대화는 국가 근대화의 선결과제이며, 각 국의 관리와 지식인 집단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중 양국의 전통 교육은 대체로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재와 교육 방법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전통 교육기관인 서원이나 향교는 생도로 하여금 과거에 급제하여 정부의 관리가 될 것을 고무하였다. 전통 서원의 교육방식은 반복 암송에 있다. 예를 들면 《千字文》에 대하여 매일 선생이 네 자를 선택하고, 학생들은 한번에 25회씩 하루에 네 차례 암송하여 매일 도합 100회씩 반복 암송하였다.⁵⁾ 이러한 교육은 과거시험을 주된 목표로 설정한 전통 시기에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속하지만 근대적 인재 양성 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근대의 인재 상은 전통 시기와 구분된다. 근대는 국가·민족에 대하여 주권·영토권 의식을 지니고 근대적 학문과 상식을 함양한, 신체가 튼튼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과거의 교육 방식은 이러한 인재에 대한 근대적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서양의 문물제도를 접하면서 한국의 일부 지식인, 관리들은 교육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근대적 전변을 꾀하였다. 먼저 근대 교육을 주창한 이는 관리들이다. 일본의 선진적인 근대 문명을 목격하면서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간파한 일부 관리들은 정부에 근대 교육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대표적인 관리로는 개화파인사인 朴泳孝, 金玉均 등이다. 두 사람은

5) 김두정, 《한국 학교 교육과정의 탐구》, 107-108쪽 참조.

청나라와의 事大關係에 대결하여 자주성을 지향하고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개혁의 모델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⁶⁾ 일본의 개혁과 발전을 목도하면서 날로 무능해지는 청조보다는 신흥강자인 일본의 모델을 도입하여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먼저 김옥균이 고종에게 교육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巨文島事件에 대한 上疏〉(1886)에서 “우리나라가 중고 이전 國運이 융성할 때는 일체의 기계 산물이 동양 三國에 으뜸이었는데, 지금에는 모두가 폐절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전통 시기와 근대 시기 조선의 국운을 비교하면서 당시의 낙후성을 통탄하였다. 그는 고종에게 학교를 널리 세워 民智를 개발하고 우매한 백성을 근대화된 문명으로 개화하고 가르치기를 촉구하였다. 그는 “밖으로는 歐美 각국과 신의로써 친교하고 안으로는 정략을 개혁하여 우매한 인민을 가르치되 문명의 道로써 하고, 상업을 흥기하여 재정을 정리하고 또 군대를 양성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⁷⁾ 그의 최종 목적은 부국강병을 실현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근대 교육을 발전시키고 상공업을 흥기시키며 근대화된 군대를 양성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다.

朴泳孝 또한 고종에게 〈開化에 대한 上疏〉(1888)를 올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⁸⁾ 여기서 그는 동서양의 차이점을 학교 교육에서 찾았다. 즉 실용 학문을 가르치는 서양 문명국가는 날로 부강해지지만 文華를 추구하는 것을 일삼는 동양의 교육은 현재의 생활방식에 부합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채 나라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朴泳孝는 본 상소문에서 학교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⁹⁾ 그는 6세 이상은 남녀 불문하고 학교에 취학하여 근대 교육을 받게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교육내용은 국사·국어·국문을 우선시함으로써 민족·국가에 대한 주권의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법률·재정·정치 등 서양 근대 지식을 접하게 함으로써 전통 四書三經·千字文을 익히던 서원과는 교육의 대상, 내용을 달리 하였다. 김옥균이 1886년의 상소문에서 근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데 그쳤다면, 박영효는 그의 상소문(1888)에서 근대 학교 교육

6) 孫仁錫, 《韓國教育思想史 V》, 1276쪽.

7) 孫仁錫, 《韓國開化教育研究》, 80쪽.

8)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저 교육은 磁石과 같은 것이요, 사람이 큰 바다나 사막 속에 있어서 방향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라도 자석만 있으면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석이야말로 사방을 통하고 문명으로 나아가는 긴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천하의 급무요, 要務인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옥중에서까지 설교하고 인도하여 잘못을 고치고 착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근세 이후로 학문의 本意를 모르고 글장난이나 일삼아 四書三經과 諸子百家의 책이나 외우고 문장이나 잘 지으면 비록 썩은 선비라도 大學士라고 해서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나라를 그르치니, 이것이 아시아 여러 나라가 衰頹한 근원입니다. 그러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 實用을 먼저 하고 文華를 뒤로 하여야 합니다.....이것은 모두 정부가 窮理, 發明의 길을 열지 않고 도리어 방해하였기 때문이니, 오늘날의 급무는 학교를 크게 일으키는 데에 있습니다.” 朴泳孝, 〈開化에 대한 上疏〉, 1888(孫仁錫, 《韓國開化教育研究》, 345쪽).

9)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학교와 중학교를 세워 남녀 6세 이상은 모두 就學하게 합니다. 둘째, 백성에게 먼저 국사·국어·국문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을 고용하여 백성에게 법률·재정·정치·의술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朴泳孝, 〈開化에 대한 上疏〉, 1888(孫仁錫, 《韓國開化教育研究》, 346쪽).

의 목적, 대상 등을 분명히 하였다.

근대 학교는 전통 서원과 달리, 근대 국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대 국민이란 국가에 대한 주권인식을 지니고 근대적 산업에 종사하는 국가의 구성원을 말한다. 근대 국민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능력을 갖추고, 과거와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애국심이 강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최신 함대나 무기를 다룰 수도 있어야 한다. 근대 학교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와 체계를 갖추어야 했다. 이 때문에 《千字文》, 《童蒙先習》, 《擊蒙要訣》, 《小學》, 《四書五經》 등 전통 교과목이 아니라 정치·경제·군사·외교·지리·수신 등 근대 교과목을 주 대상으로 했다. 전통의 향교나 서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1880년대 개화파 관리들의 교육 개혁안에 힘입어 정부는 1894년부터 교육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 한국은 대외로는 청일전쟁을 겪게 되고 대내로는 신구파의 정권다툼이 있었으며 또 농민과 지배계급 사이의 갈등도 첨예하게 나타났다. 동학혁명(1894년)에 이어 청일전쟁(1894-1895)이 일어났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 5개조를 강요하였다. 5개조의 내용은 ‘인재택용, 재정정비, 재판공정, 군경충실, 학제완비’이다.¹⁰⁾ 조선은 일본의 5개조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파는 정치에서 물러나고 개화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교육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한국의 근대 교육 개혁은 일본과 관련이 있다. 일본이 요구한 5개조는 정치·경제·군사·경찰·행정·사법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영역에 대한 개혁안이다. 그 가운데서 학제는 조선 정부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행된 항목이다. 1894년 새 정권은 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정치·군사 등 사회 제반에 대한 개혁 내용을 토의한 후 3개월 만에 208항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것이 ‘갑오혁신’이다. 그 가운데 1894년 7월에 반포한 교육 관련 개혁안인 〈告示〉는 주목할 만하다. 순한문으로 된 〈告示〉는 약 700자에 달한다. 교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아보건대 시국은 크게 바뀌었다. 모든 제도가 다 함께 새로워야 하지마는 英才의 교육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세워 먼저 서울에 행하려 하니 위로 公卿大夫의 아들로부터 아래로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다 학교에 들어와 배워 아침에 외우고 저녁에 익히라. 그리하여 장차 힘을 길러 시대를 구하고 內修와 외교에 각각 크게 쓰고자 하나니 진실로 좋은 기회이다. 앞으로 대학교와 전문학교도 차례로 세우려 한다. 무릇 뜻있는 자는 일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聖世를 이루려는 大志를 버리지 말라.¹¹⁾

여기서는 근대 교육의 목적이 국민 양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입학 조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직접적으로 지향하였다. 학교 입학 요건에 전체 국민을 포함시

10)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406쪽.

11) 孫仁鎰, 《韓國 近代教育史: 韓末・日帝治下の 私學史 研究 1885-1945》, 27쪽.

킨 것은 근대 교육의 특징이다. 전통 교육도 원칙적으로 모든 양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엄격한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한 전통 교육의 대상과 범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하여 근대 교육은 법령의 형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교육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대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학부의 여러 노력 끝에 1895년 초에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를 발표하였다. 고종이 교육조서를 반포하였던 것이다. 1894년 12월에 공포한 〈홍범〉 14조 가운데서 해외 유학생 파견(제 11조)과 인재등용에 관한 사항(제 14조)을 기반으로 하여, 1895년 2월 2일 고종은 〈教育立國詔書〉를 반포하였다. 교육 관련하여 고종은 德·體·智 3자를 결합한 교육이념을 강조하였으며, 근대 학교를 널리 세워 인재를 양성할 것을 호소하였다.¹²⁾

고종의 교육조서를 계기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 1894년이 준비단계라면, 1895년은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 속한다. 1895년 7월에 반포한 〈소학교령〉은 근대 교육 이념·교육제도·학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으로, 한국 교육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학제이다. 근대 교육 체계에 대한 구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학제이기 때문이다.

이 법령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다음과 같다. “小學校는 兒童 身體의 發達함에 鑒하여 國民教育의 基礎와 其生活上 必要한 普通知識과 技能을 授함으로써 本旨로 한다.”¹³⁾ 이는 근대 교육의 목표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상식 및 기능의 전수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교육의 목적이 국민 양성에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이다. 이 시기부터 학교 교육 및 교과목, 교과서 등이 전통 서원의 방식과 결별하고 근대식으로 전환되었다.

〈소학교령〉은 구체적인 교육 방식을 제시하였다. 만 8세부터 15세까지의 8년간을 學齡으로 정하고 각 府, 郡으로 하여금 관내의 학령 아동을 취학시킬 公立小學校를 세우도록 하였다. 또 “심상·고등 2과로 편제하여 남녀를 똑같이 취학케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남녀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¹⁴⁾ 초등교육은 근대 국민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다. 국민의 의무와 애국심이 교육되고, 새로운 사회에 맞는 직업을 수용할 능력이 갖춰지는 과정이다. 초등교육이 발전해야 제반 산업 예비군이 증가하고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할 국민이 대대적으로 양성되기 때문이다.

위로부터의 교육개혁은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학제 반포 과정은 근대 학교 설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중 양국 모두 최초의 근대 학교 설립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학제를 반포하고 근대 교육 발전에 통일적 질서를 부여하였다. 단, 근대 교육에 대한 개입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반면 중국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따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한중 양국 최초의 근대 학교는 모두 민간이 세웠다. 한국의 경우 元山學舍(1883)가 최초의

12)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409-411쪽.

13) 김정효·이성은·정희숙·이해지·허선영,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성립》, 55쪽 참조.

14) 孫仁鎰, 《韓國開化教育研究》, 347쪽.

근대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은 天津中西學堂(1895)이 최초의 근대학교로 파악된다. 한국이 중국보다 12년 앞섰다. 元山(함경남도 소재)과 天津 모두 외국인과의 교류가 빈번한 항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연해의 요충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원산 지역은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잦았다. 이곳 사람들은 근대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는, 지역의 모든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 학교를 창립하였다.

원산학사 설립을 발의하고 기금 대부분을 부담한 사람들은 德源의 鄉中父老들, 元山社의 백성들(덕원 읍민들)이다. 또한 鄭顯奭을 비롯한 개화파 관리들이 이에 호응하고 지원하였다. 원산학사 창립의 출의액을 보면 한국인이 총설립 기금의 88.8%를 부담하고 중국인, 영국인, 미국인, 덴마크인 등 외국인이 나머지 11.2%를 부담하였다. 한국인의 출의액 가운데서 민간인과 관리가 각각 95.0%, 5.0%를 부담하였다.¹⁵⁾ 이것은 원산의 백성들이 원산학사 설립의 발의, 청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더러 창립 기금의 측면에서 보아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원산학사를 근대 학교로 판단한 이유는 교과목에 있다. 원산학사는 소·중학교 과정의 통합교육기관(수업연한 1년)이다. 이 학교의 반편성은 文藝班과 武藝班으로 나누어져 있다. 50명 정원의 문예반은 經義를, 200명 정원의 무예반은 兵書와 사격술을 가르쳤다. 文·武반의 공통 교과목에는 算數, 格致(물리), 機器(기계기술), 농업, 養蠶, 礦採(광물학), 외국어, 법률, 萬國公法(국제법), 지리 등 실용학문이 포함된다.¹⁶⁾ 무예반의 존재와 정원의 규모는 원산학사의 성격을 말해준다. 원산학사의 창립자들은 외세의 침략에 위기감을 느끼고, 군사적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한 것이다. 이들이 생각한 한국 근대화의 시급한 과제에는 국가의 개조는 물론, 침략하는 외세에 대항하는 군사적 행동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산학사의 교과목은 초기 한국의 교과서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형태라 할 수 있다. 일단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초등학교의 설립은 수신, 국어, 국사 등 교과목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며, 이는 자국민에 의한 교과서 저술과 편찬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원산학사의 교과목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 한편, 원산학사 문예반의 경우 여전히 유교식 경전류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원산학사의 과목을 종합하면, 조선 전통의 문무 양 과목에 당대에 새로 대두되는 실용학문을 더한 3개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에서 근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목편성이 아닌지 추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원산학사는 〈소학교령〉 이후 소학과정과 중등과정이 분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원산학사 이후 근대 학교가 대대적으로 나타날 법하다. 그러나 근대 국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교육은 십여년 동안 발전하지 못했다. 1883년 원산에서 최초의 근대 학교를 세

15) 愼鏞廈, 《韓國 近代史와 社會變動》, 50-53쪽.

16)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근대 교과서 백년, 다시 새 세기를 넘어》, 47-48쪽.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사회 전반적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통역·군사 학교¹⁷⁾ 몇 군데를 세우는 데에 그쳤다. 민간에서는 을미의숙(1894)과 악영의숙(1894) 등 일반적인 사립학교와 선교계 학교 몇 군데¹⁸⁾를 세웠을 뿐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았다.

1890년대 중기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서부터 민간의 근대 교육이 크게 발전하였다. 정부의 개입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직접적인 것은 근대 학제의 반포이다. 초등학교·사범학교·중학교·대학교·전문학교 등 근대 교육 체제에 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6세 이상의 학생들을 초급·중급·고급 등 여러 단계의 학교에 배치한 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류하여 점진적으로 가르쳤다. 학생들의 인지 능력과 수용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과학적인 교육 방식이다.

한국의 근대 학제에 대한 구상은 1895년에 여러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이 해에 정부는 선후하여 소학교, 사범학교, 중학교에 대한 관제를 반포함으로써 교육 체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¹⁹⁾

정부는 학제의 중요도에 따라 학제 반포에 시간적 차이를 두었다. 먼저 사범학교에 대한 관제를 반포한 후에 소학교, 중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정부에서 1895년 4월 16일 공포한 〈한성사범학교 관제〉는 한국 최초의 사범학교 관제인 동시에 최초의 근대 학제이기도 하다. 이 관제에 의하면 사범학교는 本科·速成科 두 과정으로 나뉘며, 수업기간은 本科 2년, 速成科가 6개월로 되어 있다. 정부는 신학제에 의하여 1895년 4월에 한국 최초의 사범학교인 한성사범학교를 세웠다.

같은 해(1895) 7월 23일에 반포한 〈한성사범학교 규칙〉에는 사범학교 교과목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의하면 本科의 교과목에는 수신, 국문, 한문, 교육, 역사, 지리, 수학, 물리, 博物, 화학, 습자, 작문, 체조 등이 포함된다. 速成科에서는 수신, 교육, 국문, 한문, 역사, 지리, 수학, 理科, 습자, 작문, 체조 등을 가르친다.²⁰⁾ 정부의 사범학교 관제는 교과목, 학제, 수업 기간 등

17) 同文學은 정부에서 1883년에 세운 통역 학교로, 한미통상조약 체결 이후 영어를 말할 줄 아는 통역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1886년에 폐교된 후에는 다른 통역 학교인 育英公院으로 임무를 이관하였다. 育英公院 이후에는 또다시 배재학당으로 그 임무가 전이되고 학생들이 통합되었다. 정부는 1886년 12월에 군사학교인 鍊武公院(군사훈련기관)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김두정, 《한국 학교 교육과정의 탐구》, 108쪽 주석 7 참조.

18) 1885년 2월 의료선교사 알렌(H.N.Allen)은 최초의 근대 병원이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모체인 廣惠院을 세웠다. 1885년 6월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는 기독교인 양성을 위하여 배재학당을 세웠으며, 1886년 5월 미국 북감리교 여성교사 스크랜튼(M.E.S cranton)은 첫 여자 학교인 이화학당을 세웠다. 劉奉鎬, 《韓國教育課程史 研究》, 51쪽.

19) 정부에서 반포한 소학교, 사범학교, 중학교에 관한 학제는 다음과 같다. 〈漢城師範學校 官制〉(勅令 第79號, 1895년 4월 16일, 5월 1일 시행), 〈漢城師範學校 規則〉(學部令 第1號, 1895년 7월 23일 公布), 〈小學校令〉(勅令 第145號, 1895년 7월 19일, 8월 1일 시행), 〈小學校 敎則大綱〉(學部令 第3號, 1895년 8월 12일), 〈中學校 官制〉(勅令 第11號, 1899년 4월 4일) 등이다. 劉奉鎬, 위의 책, 53쪽 참조.

20) 孫仁銖, 《韓國開化教育研究》, 93쪽.

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의 관제는 모두 이 관제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였다.

사범학교 학제 반포 후 정부는 소학교 학제를 공포하였다. 1895년 7월에 반포한 〈소학교령〉에는 구체적인 학제, 교과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소학교는 尋常科 3년, 高等科 2년 또는 3년으로 나뉜다.²¹⁾

사범학교와 소학교 관제를 반포한지 4년이 지나고 정부는 중학교 학제를 반포하였다. 1899년 4월 4일에 반포한 〈中學校 官制〉에 의하면 중학교 수업 기간은 7년으로 尋常科 4년, 高等科 3년으로 구체화된다. 정부는 이 관제에 근거하여 1900년에 최초의 관립 중학교인 한성중학교(경기도등학교 전신)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관제에 따른 高等科는 끝내 시행되지 못했다.²²⁾

1895년부터 정부에서 여러 법규를 반포하여 통일적인 학제를 제시하자 관·공립 학교 설립이 활발해졌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국립·관립의 초등학교는 서울에 10개, 지방에 50개 창립되었다.²³⁾ 그러나 을사조약(1905) 이후 일제의 제도적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1910년까지 관학이 부진하였다.

한국은 사립학교도 발전하였다. 정부는 일찍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 교육의 발전 수요는 관학만으로 부족하며 사학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관학·사학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구상하였다. 교육 관리 기구인 學務衙門은 1894년 9월 1일에 초등학교 창립에 관한 〈告示文〉에서 사학을 장려하였다.²⁴⁾ 향교와 서원의 병존에서 보듯, 한국은 오래전부터 관학과 사학의 공존 전통이 있었다. 정부는 근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민간의 협조를 요구하였다.

정부가 근대 학교를 세우는 데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자, 민간은 신속하게 호응하였다. 민간 지식인과 사상가들은 점점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국운을 바로잡고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므로써 세계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여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근대 학교를 건립하였다. 이 시기 민간인이 세운 학교로는 1894년 을미의숙과 악영의숙, 1895년 민영환이 세운 흥화학교, 1896년 민영기가 세운 중교의숙, 1901년 서광세·이광중·박정동·민병두가 세운 낙연의숙, 1902년 양재관이 세운 우산학교, 1904년 청년학원 등이 있다.²⁵⁾ 1905년에는 또 양정의숙, 휘문의숙, 보성학교 등이 신설되었다.²⁶⁾ 1909년까지 3,000 여 교에 학생 수

21) 함종규, 《韓國教育課程變遷史研究: 조선조 말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38쪽.

22) 劉奉鎬, 《韓國教育課程史 研究》, 56쪽 참조.

23) 劉奉鎬, 위의 책, 55쪽.

24)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라가 교육지침서를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고, 국민은 직접 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관학과 사학은 다른 것이 없고 나라가 운영하는 한 두 개의 학교만으로는 모든 아동을 가르칠 수 없으므로 家塾이 이를 분담하여 私塾을 설치하고 學務衙門에 와서 고하면 교육지침서를 주겠다.” 〈告示文〉, 1894년(김정호·이성은·정희숙·이해지·허선영,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성립》, 50-51쪽).

25)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426-428쪽 참조.

20만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²⁷⁾ 관립학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요청하고 민간이 화답했던 것이다.

新學制를 반포하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국은 위로부터 근대교육의 도입을 시도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정부가 따라가는 양상이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자, 중국의 지식인들은 中體西用의 담론을 폐기하고, 전반서화의 경로를 밟았다. 민간이 먼저 학교를 세우고, 학제를 운영하였으며, 교과서 발행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녀들을 학교로 보냈다. 민간의 근대 학교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에 영향을 받아 1902년, 1904년에 거쳐 두 번의 학제를 반포함으로써 근대교육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양무과 관리이자 실업가인 盛宣懷는 天津中西學堂(1895), 上海南洋公學(1897)을 세웠는데 양자 모두 중국 최초의 신식 학교로 꼽힌다. 그 뒤에 많은 지역에서 신식 학교를 설립하였다. 北京通藝學堂(1897), 廣州時敏學堂(1898), 無錫三等公學堂(1898), 上海澄衷蒙學堂(1901) 등이 여기에 속한다.²⁸⁾ 이 학교들은 특정 계층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의 설립자들도 전직 관리, 실업가, 지식인 등으로 다양하며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았다. 근대 학교를 민간에서 먼저 설립한 중국은 학교마다 각양각색의 학제를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발전기에 진입한다. 학제가 다르고 교과목도 제각각이다.

上海南洋公學(1897)은 근대 학교의 태동기 상황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학교는 상해의 실업가 盛宣懷가 돈 10만 냥으로 세웠다. 그는 일찍이 1895년에 天津中西學堂을 세웠다. 南洋公學의 체제는 天津中西學堂보다 더욱 완비되었다. 후자는 頭等學堂(대학당)과 二等學堂(중학당)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비하여 南洋公學은 師範院(사범학당)·外院(소학당)·中院(중학당)·上院(대학당)으로 이루어졌다. 학교 체계에서 완비성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1897년의 上海南洋公學을 살펴보고자 한다.

盛宣懷는 1897년 4월에 먼저 師範院을 세웠다. 師範院은 189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범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師範院 졸업생들은 南洋公學 부속 소학교 교사를 맡거나 다른 학교에 가서 교사직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師範院의 운영 방식은 그 후 京師大學堂 師範齋와 기타 사범학교의 모델이 되었으며, 정부의 학제인 〈欽定學堂章程〉(1902)의 원형이 되기도 하였다.

같은 해(1897) 11월 南洋公學은 소학교인 外院을 설립하였다. 소학교 교사가 부족하여 師範院의 사범생들이 外院의 교사를 맡기도 하였다. 교과목으로 국문, 산술, 영어, 지리, 역사, 체조 등 여섯 과목이 개설되었다.²⁹⁾ 外院은 3년제로 구상되었으나 2년 만에 外院의 생도들이

26) 함종규, 앞의 책, 36쪽.

2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教育學의 成長과 課題》, 56-57쪽.

28) 吳小鷗, 《中國近代教科書의 啓蒙價值》, 45쪽.

29) 陳啓天, 車錫基·金貴聲 共譯, 《근대중국교육사》, 124쪽 참조.

모두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바람에 1899년에 폐지되었다. 그들이 진학한 학교에는 남양공학의 中院(중학당), 天津中西學堂 내의 二等學堂(중학당) 등이 포함된다.

1898년 봄 南洋公學은 外院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中院(중학당)을 설립하였다. 교과목에는 국학·史地·영어·불어·일어·수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1899년 外院이 폐지되자 中院의 학생모집이 어려워졌다. 이에 南洋公學은 1901년 3월에 附屬小學을 개설하였다. 교과목으로는 수신·국문·역사·지리·산술·이과·圖畫·체조가 포함되어 있다.³⁰⁾

1897년 盛宣懷는 정부에 〈奏陳開辦南洋公學疏〉를 올렸는데 頭等學堂을 설립하여 南洋公學 上院으로 명명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盛宣懷는 1895년 天津中西學堂 내에 頭等學堂을 설립한데 이어 두 번째 신식대학인 上院을 세웠다.³¹⁾

중국의 근대 교육은 민간이 근대 교육을 선도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민간에서 먼저 초등학교를 세워 몇 년 가르친 후 그들을 수용할 중학교를 세웠다. 사범학교는 학교 교사 양성 목적으로 처음부터 설립되었다. 중국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교육 체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의 통일된 학제는 이로부터 몇 년 뒤에 나타났다. 1902년, 청 정부는 근대 최초의 학제 〈欽定學堂章程〉을 반포하였다. 이 학제는 초등 교육 10년, 중등교육 4년, 고등학당 3년, 대학당 3-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초등교육은 蒙學堂(4년), 尋常小學堂(3년), 高等小學堂(3년)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 학제는 공포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1903년 11월에 폐지되었다. 민간의 실제 교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학교의 외면을 받았다.

1904년 청 정부는 새로운 학제인 〈奏定學堂章程〉(〈癸卯學制〉로 불림)을 반포하였다. 이 학제는 초등교육 9년, 중등교육 5년, 고등학당 3년, 대학당 3-4년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초등교육은 初等小學堂 5년, 高等小學堂 4년으로 나뉜다. 이 학제는 민간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바 초등교육을 1902년의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는 학교와 출판사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중국은 1895년에 최초의 근대 학교가 등장한 후 민간 지식인·실업가들이 주축이 되어 근대 학교를 보급하였다. 신식 학교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대단했다. 그들의 근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학교가 출현한지 불과 12년만인 1907년에 초등학생 수는 이미 91만 명에 달한다.³²⁾ 1920년이 되자 572만 명에 달한다.³³⁾ 1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여학생만 따로 살펴보면 1906년에는 306명, 1923년에 이르면 41만 여 명에 달한다.³⁴⁾ 17년 사이 100배 이상 늘어났다. 취학률도 증가했다. 1929년에는 전국 초등학

30) 김유리, 《서원에서 학당으로: 청 말 서원의 학당개편과 근대학제의 수립과정》, 46-47쪽.

31) 陳啓天, 앞의 책, 128쪽.

32) 陳啓天, 위의 책, 166쪽.

33) 陳啓天, 위의 책, 267쪽.

34) 陳啓天, 위의 책, 335-336쪽.

교 취학아동이 전체 학령기 아동의 20%를 차지한다. 1934년에는 29.8%, 1936년에는 53%로 늘었다.³⁵⁾ 7년 사이 초등학교 취학률이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운이 쇠퇴하던 청 말에서 전란을 관통한 민국의 전 시기를 통해 취학 아동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 양국의 근대 교육 체계 수립은 모두 일본 학제를 모방하였다. 한중 양국 모두 근대 학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전통 서원을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근대 학제를 도입하여 교과목을 배치하고 학교를 경영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인접 국가인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근대 학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과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한중 양국 모두 자연스럽게 눈길을 일본에 돌렸으며 일본의 경험을 본받았다.

한국의 학제는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에서 현저히 일본의 것을 모방하였다. 당시 일본은 이 세 유형의 학교를 모두 尋常과 高等 두 단계로 나누었으며, 한국은 이를 따랐다. 사범학교의 경우 일본과 약간 다르다. 일본의 尋常과 高等 두 단계 대신, 本科와 速成科로 나누었던 것이다. 그밖에 여러 학교의 수업 기간은 일본의 것과 유사하다. 요컨대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의 단계 구분 및 수업 기간에 있어서 일본의 모델을 수용하였다.

중국도 일본의 학제를 모방하였다. 남양공학에서는 사범학교에 부속소학교를 설립하는 일본의 방식을 모방하여 1901년 3월 附屬小學을 설립하였다. 그 밖에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학제를 직접 모방하기도 하였다. 청나라의 〈癸卯學制〉(1904)와 민국초기의 〈壬子癸丑學制〉(1913) 모두 일본을 모방한 것이다.

중국 관리와 교육가들이 일본의 학제를 도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정책 제정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부분이 일본에 유학을 간 적이 있거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일본과 교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의 교육 모델을 도입하는 데 열성을 보였다. 다음, 효과가 분명했다. 중국의 학제가 일본을 모방한 결과 소학교의 발전이 신속했다. 이러한 효과에 만족한 중국의 교육자들은 일본의 학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두 차례 아편전쟁과 1884-1885년의 청불전쟁에서 실패한 청나라를 목도하면서, 한국은 일본을 롤 모델로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경험하면서 전근대 사회에서 신속하게 군사적으로 강한 근대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에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에 유학가거나 시찰하러 감으로써 일본의 선진적인 문물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에 이식하려고 하였다. 선구 지식인, 관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교육 제도에서도 나타났다.

근대 학제 수립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점은 정부의 적극성에 있다. 한국은 민간의 요구와 관계없이, 1895년부터 정부가 일련의 법령을 반포함으로써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옥균(1886)과 박영효(1888)의 상소문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정부가 신속하게 반응하였다. 정부가 근대 교육이념, 학제, 사학 관련 장려책을 제시하면 민간은 정부의 방향을 따라 실천하는

35) 陳啓天, 앞의 책, 342-343쪽 참조.

방식으로 초기 근대교육이 형성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에 민간이 동조하였던 것이다. 이와 달리 중국은 민간 주도의 발전 경로를 밟았다. 중국은 민간의 자발적이고 무질서한 환경 속에서 근대 교육을 발전시켰다. 1895년에 첫 근대 학교가 나타난 후 1901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학제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채 관망의 태도를 취했다.

학제 개편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된다. 청불전쟁에서 청나라의 실패를 목격하는 한편 세계 여러 열강들의 침략 위기 앞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독립자주를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였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국은 정부의 주도 하에 관·민이 서로 협력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학제에 대한 정부의 호소에 민간이 동조하는 교육 개혁이 행해졌다.

다음, 한국은 중국에 비하여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다. 정부의 행정력이 강하며 시행령이 전국에 널리, 신속하게 전파되고 보급된다. 교육 개혁에 있어서도 정부의 교육 정책이 민간에 그대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에서 학제를 반포하면 민간이 적극 수용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통일된 학제를 반포하기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1895년-1901년 사이 중국은 학교가 스스로 학제를 운영하였다. 학교마다 서로 다른 학제가 적용되었다. 학제가 다르다는 것은 각 학교 교과목이 가지각색이며 교과서 또한 제각각임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교육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1902년부터 정부의 뒤늦은 수습 끝에 중국의 학교 교육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중국의 근대 학교 및 학제가 주로 민간에서 활성화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무관심이다. 만주족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정부는 정권 통치와 유지에 당장 필요한 징세, 징병, 군사력의 강화 등에 몰두할 뿐 긴 시간과 대량의 자금이 필요한 교육 사업에는 투자할 의지가 부족하였다. 이에 교육 개혁의 임무는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1895년부터 민간의 지식인·실업가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의 주요 도시에 근대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중국의 근대교육이 시작되었다.

3. 관·민 협력의 교과서 편찬

한국의 근대 교과서 편찬은 관·민 협력이 중요한 특징이다. 한국은 정부가 먼저 근대 교과서를 발행하고, 민간은 필요에 따라 정부의 교과서를 사용하거나, 스스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근대 학교 설립과 교과서 편찬이 민간 주도로 행해지고 정부는 몇 년 후에야 민간의 뒤를 뒤따르는 중국과 대조적이다.

근대 교과서란 근대 국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자국민들에 의해 편찬되고, 국민을 대상으로 설립된 학교에서 사용된 일련의 교재이다.³⁶⁾ 근대 교과서는 전통 교육에서 사용하는 사서오

경 등의 경전류, 선교 학교·양무학교의 교재와 목적, 대상이 다르다. 전통 경전류는 일부 지식인 계층을 위한 수양서이자 과거시험 대비용 수험서이다. 선교 학교와 양무학교의 교재 또한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근대 교과서는 특정 연령대의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근대 국가 국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직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한국은 최초의 근대 학교와 근대 교과서가 분리되어 있다. 즉 최초의 근대 학교에서 근대 교과서를 편찬하지 않았다.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의 교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하여 1895년 정부는 근대 교과서를 편찬하기에 이른다. 중국의 근대 학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교재를 활용하다가, 1897년에 이르러 최초의 근대 교과서를 편찬하기에 이른다. 한중 양국은 근대 교과서 편찬주체가 서로 다르다. 전자는 관·민이 공동 주체이고, 후자는 민간 주도의 발전 양상을 보였다.

한국 최초의 근대 학교인 원산학사는 스스로 근대 교과서를 생산하지 않았다. 원산학사의 교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원산학사 교과서 목록³⁷⁾

교과	교과서
지리	《瀛志》 6卷, 《聯邦志》 2권, 《瀛環志略》 1권
외국어	《日本外國語學》 1권
법률	《法理文》 1권, 《萬國公法》 6권
농학	《農政新編》 2권
기타	《奇器圖說》 2권, 《大學豫備文》 1권, 《心史》 1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원산학사는 기존에 이미 출시된 중국이나 일본의 번역서들을 도입하여 학교의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였다. 내용은 국제법, 일본어, 세계 지리, 농업, 역학, 한문, 문학 등에 관한 것이다. 서양 문물과 국제 정치, 법률을 익히면서도 한문 지식 전수를 고수한 데에서 전통과 서양 지식을 모두 아우르는 면모를 볼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조선의 실학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국 최초의 근대 교과서는 학부 편집국에서 1895년 8월경에 편찬·간행한 《國民小學讀本》이다. 본 교과서는 초등학교 국어과 국정 교과서로, 국한문혼용체로 씌어졌다. 모두 1책 41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띄어쓰기가 없으며 한자 표기가 가능한 어휘들은 모두 한자로 표기하였다.

《國民小學讀本》은 모방의 결과물이다. 체례 면에서 일본의 교과서와 유사하며 내용은

36) 줄고, 앞의 글, 65쪽 참조.

37) 김정효·이성은·정희숙·이해지·허선영, 앞의 책, 103쪽.

1880년대의 《한성순보》나 《주보》 등에 실린 내용과 흡사하다.³⁸⁾ 체례, 내용 면에서 모두 기존의 서적이나 저널을 모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부의 교과서는 국문교과서의 편찬 기준이 되었다. 《國民小學讀本》을 계기로 그 이후의 국어 교과서는 대체로 전통 교재의 모습을 탈피하여 근대식으로 변하였다. 《國民小學讀本》은 〈大韓 朝鮮〉, 〈商事及交易〉, 〈식물 변화〉, 〈以德報恩〉, 〈亞米利加 발견〉, 〈원소〉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그것은 정치, 경제, 동식물, 지리, 화학, 도덕 등에 관한 것이다. 국어 교과서는 통합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 시기에 학부가 편찬한 교과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학부 편찬 교과용 도서 목록(1895-1910)³⁹⁾

서명	종류	언어	발행연도	비고
國民小學讀本	국어 교과서		1895	
尋常小學(卷一)			1895	
尋常小學(卷二)			1896	
尋常小學(卷三)			1896	
小學讀本	수신 교과서		1895	
夙惠記略	수신 교과서		1895	
種痘新法			1895	
朝鮮歷代史略	역사교과서	한문	1895	
朝鮮地誌	지리교과서		1895	
新訂尋常小學	국어 교과서		1896	
牖蒙彙編	한문교과서		1896	
西禮須知	사회교과서		1896	
公法會通(3책)	법률교과서		1896	
東輿地圖	지리교과서		1896	
輿載撮要	지리교과서		1896	
萬國地誌	지리교과서		1896	
地球略論	지리교과서		1896	
朝鮮歷史(3책)	역사교과서		1896	
朝鮮史略	역사교과서		1896	
萬國略史(上下)	역사교과서		1896	
士民必知	한문교과서	한문	1896	
近易算術(上下)	산술교과서		1896	
簡易四則算術	산술교과서		1896	
小地球圖着色			1896	

38) 李海明, 〈개화기 교육목표와 교과서 내용과의 차이점 연구: 國語·修身·倫理 교과서 중심으로〉, 327쪽.

國文小地球圖着色			1896	
泰西新史攬要		한문	1897	
泰西新史攬要		국문	1897	
中日略史	역사교과서	한문	1898	
보통교과동국역사	역사교과서		1899	
東國歷代史略	역사교과서		1899	
大韓地誌	지리교과서		1899	
初等小學讀本	국어 교과서	한문	1905	
經濟通論			1908	
普通學校體操提要			1909	
教師講習法			1910	

이 도표에서 보면 주로 국어, 수신, 역사, 지리 등 인문계열 교과서를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연과학 교과서는 대체로 일본과 중국의 교과서를 활용하였지만 국어, 수신, 역사, 지리 등 인문 계열 교과서는 외국의 것을 모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인문계열 교과서는 자국의 역사, 문화, 국어,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외국의 것을 가져다 쓸 수 없다. 이에 학부는 인문계열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편찬하였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학부의 역량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근대 교육을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근대 교육의 임무는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분담되었다. 민간에서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관학과 함께 근대 교육을 부담하였을 뿐더러 근대 교과서도 편찬하였다. 민간 교과서 편찬 주체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표 3〉 민간 편찬 교과용 도서(1895-1910)⁴⁰⁾

서명	편·저자	발행자	종류	연도	비고
국문정리	리봉운	국문국(리봉운)	문법	1897	
普通教科東國歷史	현채	漢城書畫館	국사	1899	韓裝本
大韓地誌	현채	廣文社	지리	1899	韓裝本
美國獨立史	金嘉鎭 述	皇城新聞社	외국사	1900	韓裝本
국문독본	조원시	미이미교회	국어	1902	韓裝本
歷史輯略	金澤榮 編	金澤榮	국사	1902	韓裝本
牖蒙千字	기일(G.S.Gale)	大韓聖敎書會	한문	1904	韓裝本
大東歷史	崔景煥 編	독립협회	국사	1905	韓裝本
埃及近世史	張志淵 譯述	皇城新聞社		1905	韓裝本

39)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109-110쪽; 김정호·이성은·정희숙·이혜지·허선영,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성립》, 110쪽 참조.

初等小學	大韓國民教育會	좌동	국어	1906	
東國史略	현채 역술	보성관	국사	1906	
新訂東國歷史	원영의, 柳瑾	휘문관	국사	1906	
高等小學讀本	徽文義塾編輯部	徽文館	국어	1907	
新撰初等小學	현채	현채	국어	1907	
幼年必讀釋義	현채	현채	국어	1907	
국문과본	元泳義	中央書館	국어	1908	
勞動夜學讀本	俞吉濬	俞吉濬	국어	1908	
蒙學必讀	崔在學	최재학	국어	1908	
新撰尺牘完編	金雨均	동문사	국어	1908	
初等小學	普成館	普成館	국어	1908	
初等捷徑	韓承坤	光明書館	국어	1908	
大同歷史略	俞星濬	博學書館	국사	1908	
中等教科東國歷史	현채	현채	국사	1908	
初等大韓歷史	정인호	玉璫書林	국사	1908	
初等本國歷史	興士團	동문관	국사	1909	

이 일람표에서 보면 개인, 단체, 학회 등 다양한 주체가 교과서를 편찬·출판하였다.

관·민 협력 하에 근대 교과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김봉희에 따르면 개화기(1895-1910) 한국 국내에서 유통된 국내서, 외국서의 총수는 1,057종이다. 그 가운데서 교과서 총수를 대략 700종에서 1,000여 종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⁴¹⁾ 전체 출판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과서는 근대시기 한국의 출판산업을 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 성과에 의하면 개화기에 발행된 교과서는 총 560여 종이며, 그 중 106종은 소학교령기(1895-1905)에 발행된 반면 보통학교령기(1906-1910)에 발행된 도서는 전기의 4.3배가 증가한 450여 종이다.⁴²⁾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 하에 근대 교과서가 끊임없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국문 교과서는 대체로 통합교과서에 속한다. 국문·수신(도덕) 등 인문계열 교과서는 정치·경제·私德·公德·외교·군사·지리·생물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국문·수신 교과서도 통합성을 지닌다. 南洋公學에서 편찬한 《蒙學課本》(1897)은 최초의 근대 교과서이며, 국어 교과서의 편찬기준이 되었다. 고대 경전에서 私德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을 뿐더러 농업·상업·광업·공업 관련 내용과 지리·역사·군사 지식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40) 李鍾國, 《한국의 교과서상》, 55-57쪽 참조.

41)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133-134쪽.

42) 조연순·정혜영·김정준·김형목·김은희,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발전》, 79-80쪽.

이 교과서는 남양공학에 재학중이던 師範院의 학생들인 陳懋治·杜嗣程·沈慶鴻 등이 교학의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내용을 스스로 편찬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이 교과서는 모두 三編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상식에 관한 것으로, 학생들의 인지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난이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배치되었다. 간단한 문언문으로 되어 있다.

《蒙學課本》에서 德育·智育·體育에 따라 본문 내용을 편찬하는 방식은 그 뒤 중국 근대 국어 교과서의 편찬 통례가 되었다. 南洋公學은 1901년에 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하여 《新訂蒙學課本》三編을 출판하였다. 이 교과서는 南洋公學에서 제1차 인쇄되고 上海商務印書館에서 인쇄·출판되었다. 교과서에 실린 덕육, 지육, 체육의 비중을 보면 총 128개의 본문 가운데서 德育·智育·體育이 각각 40개, 68개, 10개이다. 이러한 내용 분배 방식은 이후 文明書局에서 편찬한 《蒙學讀本》, 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最新國文教科書》의 중요한 편찬 기준이 되었다.

내용에 있어서 한중 양국의 국어 교과서는 통합성이 강하다. 근대 학교는 국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바 교과서 편찬자들은 이에 필요한 지식을 기재하기 마련이다. 여자전문학교와 남자전문학교, 문과와 이과 계열 학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근대 학교가 국어 교과서에 국민 소질 함양에 필요한 내용, 예컨대 납세와 국방 의무,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인식, 公德과 私德, 개인위생 등을 기입하였다. 초등학교의 저급 학년일수록 이러한 속성이 강하다.

한중 양국은 교과서 편찬주체가 서로 다르다. 한국은 관·민 협력의 양상을 보였지만 중국은 교과서 편찬 주도권이 대체로 민간 출판사에 의해 독점되었다. 국문 교과서는 편찬체례·편찬내용·편집원칙 등에 있어서 민간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 한마디로 중국은 민간 중심의 발전을 겪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인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한국의 정부는 개혁의지가 강했으며, 민간은 서원 운영을 비롯한 교육기관 운영 경험이 충분했으며, 외세에 의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었다. 정부와 민간의 근대 교육을 위한 협업이 자연스러웠다. 중국은 정부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특히 上海를 중심으로 교육을 발전시켰다. 교과서 주 생산자인 민간 출판사들이 대체로 상해에 모여들었다. 상해는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 상공업의 발전, 교통의 편리, 외국 자본의 대량 유입 등 유리한 조건 이외에도 인재가 결집되었다.

당시 많은 지식인·실업가들이 상해에 유입하였다. 19세기말 무술변법의 실패는 지식인들의 개혁 의지를 더욱 불태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898년 개량파 지식인들이 황제와 함께 백일유신을 행하였지만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에 의해 좌절되었다. 황제에 의한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에 한계를 느낀 일부 지식인들은 북경을 떠나 지방에 내려가 개혁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張元濟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조정에 대한 절망 속에서 남하하였다가 上海 商務印書館 초대 편집장이 되었다. 그는 商務印書館에 거대한 경제적 수익을 안겨준 《最新教科書》 편찬을 주관하였다. 商務印書館 대부분의 교과서 편찬 작업은 그의 인솔 하에 행해졌다. 개량파 지식인들의 남하는 근대 교과서 편찬 사업에 중요한 인적 자원을 마련하였다.

4. 소규모 자급자족형 생태계

생태계적 관점의 연구는 교과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상호관계, 이 관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생태계를 잉태한 제반 환경에 대해 고찰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교과서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교과서를 둘러싸고 긴밀히 연결된 채 꾸준히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교과서 생태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양국 모두 교과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분명히 존재한 점, 그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일련의 구조를 형성하고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교과서 생태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의 교과서 생태계는 교과서의 생산과 공급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이 우호적이며, 대립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 교과서를 편찬하는 특징을 보인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기 시작했으며,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학회, 단체, 개인)이 편찬자의 대열에 합류해 정부와 민간이 병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교과서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한 시장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도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대규모 시장을 형성한 중국은 일찌감치 단일 시장형 교과서 생태계를 형성하였다. 최초에는 학교 스스로 생산-소비하는 교과서 생태계를 형성하였다. 南洋公學에서 편찬한 《蒙學課本》(1897), 無錫三等學堂에서 편찬한 《蒙學讀本》(1898)과 《蒙學讀本全書》(1901) 등이 그 전형을 이룬다. 이러한 교과서들은 모두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침에 교과서가 부재한 불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직접 국어 교과서를 만든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면, 초기의 교과서는 다만 해당 학교 내부에서 유통되었으며, 교사들이 편찬한 교과서를 학생들이 손으로 베껴 쓰거나 학교 내부의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유통시켰다.

그 가운데서 완성도가 높은 일부 교과서는 사회적 인기를 얻었다. 이에 민간 출판사들이 교과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1901년 商務印書館에서 南洋公學의 《蒙學課本》(1897)을 재간한 것, 1902년 上海文瀾書局과 文明書局에서 각각 無錫三等公學堂의 《蒙學讀本全書》(1901)를 재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간 출판사들이 교과서 시장에 진입한 것은 당시 교과서 시장의 규모가 크고 거기서 창출되는 상업적 이윤 또한 많음을 말해준다. 민간 출판사들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그들의 동향에서 당시 교과서 출판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민간 출판사는 몇 년의 발전기를 거쳐 점차 학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교과서를 편찬하여 출판 시장에 출시하였다. 商務印書館은 1902년 8월 初等小學 교과서 《文學初階》 1책을 발행하였으며, 1903년에는 《最新教科書》 시리즈(1903-1911)를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商務印書館은 후자의 성공으로 교과서 출판 부문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911년까지 商務印書館이 발행한 교과서는 375종에 달한다. 1920년대에 이르러 商務印書館의 교과서 발행량은 전국 教科書 총 발행량의 70%를 차지했다.⁴³⁾ 출판업계 1위의 지위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다.

다른 출판사들도 교과서 출판시장에 진입하였다. 文明書局은 1903년부터 《蒙學教科書》 시리즈를 만들었다. 1912년에는 中華書局이 교과서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1924년에는 世界書局도 동참하였다. 商務印書館·中華書局·世界書局 3강은 근대 교과서 역명기부터 그 뒤 수십 년 동안 교과서 시장을 장악하였다.

민간출판사가 교과서 시장에 진입한 이후, 학교는 다만 교과서 소비자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정부는 일부 교과서를 생산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교과서 생태계에서 심의기관으로서 참여하였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생산(민간 출판사) - 심의(정부) - 수요(학교)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생태계가 시장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민간 출판사의 발전이 느리며 교과서의 대규모 출판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채 학회, 개인,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병립하는 소규모 생산 규모의 생태계를 이루었다. 출판사는 학교 또는 민간 교육단체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과서 생태계에서의 독자적 지위 또한 미약하다.

출판사는 대체로 학회, 학교, 개인의 출판을 보조하는 인쇄소의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단체 興土團 단원들이 세운 同文館, 민간 사립학교 普成學校에서 부설한 普成館, 徽文義塾에서 세운 徽文館, 玄采가 만든 玄采家 등 출판사들은 모두 개인 혹은 교육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중국의 민간 출판사들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흡수하면서 교과서 편찬 주도권을 장악하며 정부·학교와 더불어 교과서 생태계의 주요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양국의 교과서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에도 차이가 있다. 중국 정부는 교과서 편찬을 장악하고자 했지만, 민간과의 경쟁에서 완패했다. 청 정부는 1905년에 교과서 편찬기구 學部圖書局을 설립한 후 여러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1907년에 최초의 교과서 《初等小學國文教科書》를 출판할 수 있었다. 민간이 최초의 교과서를 발행한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후에 또 《修身教科書》를 간행하였다. 1911년 청조가 멸망되기 전까지 학부는 도합 130여 종의 교과서를 편찬하였다.⁴⁴⁾ 그러나 경영전략의 낙후성, 교과서의 품질 저하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교과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뿐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교과서 생태계는 민간 중심의 시장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 정부는 강한 통제력을 지닌다. 특히 교과서 편찬자 역할이 두드러진다. 1895년에 첫 교과서를 편찬한 후 그 뒤에도 여러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이에 대한 통제는 위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교과서 심사기관의 역할을 맡았을 뿐더러 교과서의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는 민간 국어 교과서의 편찬기준이 되었다.

43) 傅國湧, 〈“昌明教育平生願”——張元濟與商務印書館〉, 92쪽.

44) 張運君, 〈晚清學部與近代教科書的審定〉, 88쪽.

한국의 경우 다양한 편찬 주체가 공존했다. 특히 학회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당시 민간에는 많은 학회가 창립되었다.⁴⁵⁾ 이들 학회는 학교를 부설하여 교육을 흥기시키고 서적을 편찬, 발행함으로써 애국심을 키우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학회는 부설기관으로 인쇄소를 만들어 교과서를 간행하였다.

민간단체 가운데서 교과서 편찬기관으로 유명한 단체는 國民教育會·興士團 등이다. 國民教育會는 유성준, 유근, 현재, 박정동, 유옥겸 등을 중심으로 “일반국민의 교육을 고무격려하여 지식을 발달시켜 완고한 弊習을 없애고 維新의 규모를 확립할” 목적으로(國民教育會 규칙 제2조) 세워진 단체이다.⁴⁶⁾ 당시 많은 진보인사들이 국민 계몽을 위해 이 단체에 가입하였다.

國民教育會는 서적의 편찬과 번역에 주력하는 한편 서적의 인쇄를 담당할 인쇄소를 회관 내부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國民教育會 회원들은 이 인쇄소에서 직접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이 단체가 편찬, 발간한 교과서로는 1906년의 《尋常小學》과 《大東歷史略》, 1907년의 《初等小學》, 《初等地理教科書》, 《新撰小物理學》, 《新撰小博物學》 등이 있다.⁴⁷⁾ 부설기관인 인쇄소를 만들어 교과서를 간행하는 이러한 방식은 당시 널리 성행하였다.

國民教育會의 활동 모습은 당시 여러 단체에서 나타났다. 國民教育會와 인적·업무 상 밀접하게 연관되는 興士團도 그 전형을 보여주었다. 兪吉濬을 주축으로 한 興士團은 국민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興士團은 처음에는 國民教育會의 건물 일부를 빌려 활동하였다. 國民教育會 회원 상당수가 興士團에 참여하였으며 1907년 國民教育會가 폐지된 후 홍사단이 여러 교육 업무를 이어받았다.⁴⁸⁾ 당시 여러 민간단체들이 서로 밀접하게 왕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興士團의 주 업무는 國民教育會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부설하고 교학에 사용할 교과서를 편찬·간행하는 일이다. 실제로 興士團은 《初等本國略史》(1907), 《初等本國地理》(1909) 등 교과서를 간행하였다. 홍사단의 부단장 兪吉濬은 단원들이 편찬한 서적들을 인쇄하기 위하여 同文館이라는 인쇄소를 세웠다. 개화기(1895-1910)에 홍사단원들이 저술하거나 번역한 서적은 48권에 달한다.⁴⁹⁾ 개화기 교과서 발행 총수가 560여 종임을 감안하면 교육에 대한 홍사단의 기여가 큼을 알 수 있다.

일부 민간학교도 교과서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普成學校는 교과서 출판과 관련한 제반 요소를 구비하였다. 학교 창립자 이용익은 普成學校 내부에 교과서 출판사인 普成館, 인쇄소인

45) 당시 민간 학회로 大韓自強會, 西北學會(西友學會·漢北興學會), 皇城中央學會, 湖南學會, 嶺南教育會, 大東學會, 女子教育會, 太極學會, 大韓興學會, 大韓同寅會, 大韓學會, 關東學會, 輔仁學會, 國民教育會 등이 있다. 孫仁銖, 《韓國開化教育研究》, 117-118쪽 참조.

46) 김봉희, 앞의 책, 115쪽 참조.

47) 김봉희, 위의 책, 116쪽.

48) 김봉희, 위의 책, 119쪽 참조.

49) 김봉희, 위의 책, 119쪽 참조.

普成社, 편찬 기구인 편집부를 설치함으로써 근대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교장, 교감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교사들이 교과서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다.⁵⁰⁾ 徽文義塾도 普成學校와 마찬가지로 인쇄소인 휘문관을 부설하여 모든 교사들이 여러 교과서를 편찬, 간행하였다.⁵¹⁾ 당시 휘문의숙의 휘문관은 보성학교의 보성사와 함께 학교중심의 교과서 생태계를 주도하였다. 이처럼 일부 민간 학교는 인쇄소, 출판소를 사설하여 스스로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개인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끈 경우도 있다. 일부 지식인들은 직접 인쇄소를 사설하여 교과서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지식인이 바로 현채이다. 중인 가문 출신인 현채는 그의 아들 玄公廉과 함께 인쇄소를 운영하였는데 사람들은 ‘玄采家’라고 불렀다. 개화기와 일제시대에 거쳐 현채의 저술, 번역서로 알려진 것은 모두 26종, 玄公廉의 것은 14종이며, 玄采家에서 발행한 서적은 모두 318종에 이른다.⁵²⁾ 1895-1910년 사이 한국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총 560여 종임을 감안하면 교육에서 현채 가문의 중요한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교과서 생태계에서 한중 양국은 주요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소비자의 규모 및 속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생산자의 경우 한국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민간 교육 단체·정부·학교·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여러 단체, 개인들이 스스로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한 채 공존하였다. 첫 근대 교과서 출현 시점인 1895년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는 이러한 소규모의 자급자족형 생태계가 다수 존재하였다.

중국의 경우 교과서 생산을 주도한 민간 출판사들은 이미 시장 운영 원리에 따라 작동되었으며 대부분 주식회사 양식을 취하였다. 그들은 신문 저널에 自社 교과서 관련 광고를 내거나 自社 교과서 뒷면에 교과서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들을 로비하기도 하였다.

근대 운영 방식을 도입한 출판사는 시장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다. 商務印書館, 中華書局 등은 현대 경영에 뛰어나며 교과서 시장을 장악한 전문 출판사들로 당시 높은 판매고를 보였다. 예를 들면 莊俞·沈頤가 編纂한 《共和國教科書新國文(初小)》(商務印書館)은 1912년에 초판

50) 보성관에서 발행한 서적은 다음과 같다. 《越南亡國史》(1906), 《東國史略》(1906), 《比律賓戰史》(1906), 《天文學》(1906), 《東西洋歷史》(1907), 《五偉人小歷史》(1907), 《新編大韓地理》(1907), 《萬國地理》(1907), 《中等地文學》(1907), 《蒙學漢文初階》(1907), 《師範教育學》(1907), 《家庭教育》(1907), 《普通經濟學》(1907), 《商法總論》(1907), 《商業大要》(1907), 《商業汎論》(1907), 《外交通義》(1907), 《物權法》(1907), 《民法總論》(1907), 《民事訴訟法》(1907), 《初等小學》(1908), 《普通理科學教科書》(1908), 《普通動物學教科書》(1908), 《最新初等大韓地誌》(1909), 《果樹栽培法》(1909) 등이다. 김봉희, 앞의 책, 120쪽.

51) 휘문관에서 편찬·간행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中等修身教科書》(1906), 《新撰初等歷史》(1906), 《(普通教科)東國歷史》(1906), 《高等小學讀本》(1907), 《高等小學修身書》(1907), 《大東文萃》(1907), 《新撰地文學》(1907), 《文章指南》(1908), 《乙支文德》(1908), 《쇼요 교육》(1908), 《實用家計簿記》(1908), 《簡易商業簿記學》(1908), 《初等萬國地理大要》(1909), 《普通教科修身書》(1910) 등이다. 주로 역사·수신·국문·지리 등 인문계열 교과서이다. 김봉희, 위의 책, 122쪽 참조.

52) 김봉희, 위의 책, 122쪽.

된 후 1930년대까지 8,000만권이 판매되었다. 莊俞 등이 편찬한 《商務國語教科書》(1917, 商務印書館)는 초판 이후 십년 동안 무려 7,000-8,000만권이 발행되었다.⁵³⁾ 이는 당시에 이미 큰 규모의 단일 교과서 시장이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교육 단체 또는 개인, 학교에 소속되는 한국의 출판사와 크게 비교된다. 한국에도 독립된 출판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량이 한정적이고 역할 또한 제한적이다. 그에 비하여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한 것은 단체, 학교, 개인의 사설기관으로서의 인쇄소이다. 이러한 사설기관들의 역할은 교과서를 인쇄하고 유통시키는 데에 멈춘다. 그들은 현대 기업 방식을 도입하여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출판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과서 소비자에 있어서도 양국은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소비자인 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었다. 학교는 스스로 자유롭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출판사들은 더욱 많은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학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에 교과서 샘플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한편, 관계자에게 회사 주식을 주거나 아예 직접적으로 로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교과서 출판업계는 시장의 운영 원리에 따라 소비자인 학교를 대처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과서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학교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한국의 교과서 시장은 소규모 생산자와 소규모 소비자(소수의 학교들)가 짝을 이루는 교과서 생태계가 다수 존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에 많은 단체가 스스로 학교를 세우고 그 내부에서 교과서를 생산-유통-소비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학교는 소비자로서 교과서를 선택함에 자의적으로 시장에서 인기 있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예컨대 학회 부속학교는 해당 단체의 교과서를 선택하여야 하며, 개인이 사설한 학교는 개인의 저서들 중 교과서로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학회·개인이 세운 학교는 교과서를 선택함에 상급 기관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라야 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도 선택권을 제한하였다. 학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보니 교과서 유통이 자유롭지 못하며, 이는 교과서 시장의 규모 내지는 유형을 결정하였다. 한국의 교과서 생태계는 폐쇄적인 일부 단체를 포함하며, 교과서 유통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중국이 대규모 시장형 생태계를 형성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서 上海의 번영과 발전을 눈여겨 볼 만하다.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개항장으로 변모된 항구 도시 상해는 서양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또 공업과 교통 면에서 洋務運動의 전개와 함께 번영을 맞이했다. 1865년에는 중국에서 제일 큰 군사·조선 기업인 江南製造總局을 설립하였으며 1890년에는 또 중국 최초의 기계면방직 기업인 上海機器織布局을 세웠다. 1892년에는 중국의 첫 근대 航運企業인 輪船招商局도 만들었다. 무역과 상업 체계, 근대 기업, 도시서비스 체계가 신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구도 급격히 늘어났는데, 1900년에 이미 100만

53) 줄고, 앞의 글, 16쪽.

명이 되었다.⁵⁴⁾ 상공업의 발전은 교과서 시장의 발전에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큰 규모의 인구는 교과서 소비층 기반이 되었다. 또한 교통이 발달하여 상해에서 생산한 교과서가 신속하게 전국 각지에 배송 가능하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서 교과서 출판 시장도 승승장구 하였다.

한국이 소규모 자급자족형 생태계를 형성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시장형태 보다는 소규모 생산 - 소규모 소비의 형태가 다수 존재하는 방식으로 교과서 생태계를 발전시켰을까? 먼저, 발전 기간이 짧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첫 근대 교과서 출현 시점인 1897년부터 중일전쟁 발발시점인 1937년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1895년부터 1910년까지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거쳤다. 게다가 1908년부터는 정부의 교과서 심사 및 검열이 강화되면서 교과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⁵⁵⁾ 15년의 발전 가운데서 후기 3년은 통감부의 탄압으로 온전히 발전하지 못했다. 한국의 교과서 생태계는 충분한 발전기를 거치지 못하였다. 1908년부터 일제에 의한 반복적인 수색과 탄압은 교과서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교과서 수요가 발생되자마자, 민간출판사들이 뛰어들어 교과서 시장을 형성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이 짧은 점만으로는 한중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충분치 않다.

다음, 시장의 규모가 작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인구는 중국에 비하여 규모가 작다. 학생 규모도 작은 편이다. 이는 대규모 시장의 형성에 불리하다. 중국은 당시 인구 4억에 학생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 이는 대규모 시장 형성에 유리하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2천만 인구 규모에, 학생 수가 20만 명에 불과했다. 교과서 소비자가 적은 탓에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교과서 생산이라는 행위가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의무였을 수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학회·단체·개인들이 각자 역량이 허락하는 만큼, 조국의 근대화와 생존을 위해 의무를 분담한 것으로 한국형 교과서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다. 조금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근대 교육의 주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격적인 근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는 정부기관이었으며, 민간의 경우도 대체로 계몽적 성향의 관리나 선비들이었다. 이들은 아직 수익사업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우국충정의 지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중국 최초의 근대학교를 설립하고, 근대 교육의 전형을 만들어낸 盛宣懷가 성공한 사업가였던 점과 대비된다. 중국의 근대학교들은 개항장인 천진과 상해에서 출현해, 전국적으로 확

54) 史春風, 《商務印書館與中國近代文化》, 22-24쪽 참조.

55) 통감부는 <사립학교령>(1908)과 <교과용 도서 검정제도>(1908), <출판법>(1909) 등을 반포하면서 교과서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하였다. 1908년부터 1910년까지 제출된 총 검정 출원 부수 117부 가운데 인가 부수가 55부에 지나지 않았다. 민족 출판물에 대한 심사 및 통제도 강화하였다. 헌병대를 앞세워 1910년 11월부터 그 해 연말까지 근대 초기에 출판된 교과용 도서를 비롯한 각종 민족 출판물들을 무려 20여만 권이나 불태워 소각했다. 韓鍾河, 李亮雨, 安熙天, 《韓國의 教科書 變遷史》, 44쪽; 李鍾國, 《한국의 교과서상》, 58쪽; 孫仁銖, 《韓國開化教育研究》, 336-337쪽 참조.

산되는 경로를 보였다. 상해는 지식인들과 자본이 모여들어 융합된 곳이다. 이곳에서 태동한 근대교육은 자연스럽게 상업화되고 교육산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가 개항장인 원산에서 출현했으나, 10년 넘도록 이 모델이 확산되지 못하고, 정부가 근대 학제를 반포할 때까지 정체되고 말았다.

5. 나가며

중국의 근대 교육과 교과서는 1897년부터 1937년까지 40년간의 발전기를 거쳤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1883년부터 1910년까지 27년의 시기를 거쳤다. 본격적으로 근대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 1895년을 기점으로 잡으면, 한국 교과서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는 15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양국은 근대 교육 발전 기간이나 규모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양국의 근대 교육 형성의 공통점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근대 학교를 만들고, 스스로 교과서를 편찬하여 보급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을 계몽하여 근대적 국민으로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양자 모두 근대 교육을 발전시켰으며 근대 교과서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내외외환의 위기 속에서 민간이 나서서 학교 교육과 교과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교과서 생태계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자 모두 지식인 또는 유지들이 민간 학교를 설립하여 교사들을 고용하였으며 학교 창설자 또는 교사가 스스로 그에 부합되는 교과서를 편찬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초기의 근대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모습은 양국이 비슷했다.

양국의 교과서 생산-유통 구조의 차이는 생산 주체와 규모에서 나타난다. 중국은 1901년부터 대형 민간출판사들이 교과서 생태계에 진입하면서 교과서 생산과 공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민간 출판사의 역할이 미미한 편이다. 정부, 학회, 교육 단체 또는 개인 등 다양한 유형의 주체가 교과서의 생산자로 공존하면서 교과서 시장을 각자 분담함으로써 근대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를 공급하였다.

중국은 교과서 시장을 중심으로 심의기관인 정부, 수요기관인 학교, 공급자인 민간출판사 3정립이 뚜렷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중국 정권의 부침과 외세의 침략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근대 교육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중국형 교과서 생태계 - 민간 출판사가 주도하는 단일 시장형 교과서 생태계 - 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은 본격적인 근대 교육과 교과서 생태계의 성장 과정이 짧고, 수요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와 민간 어느 쪽도 교과서 생산에 있어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공존하는 형태를 취했다. 교과서 생산 주체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소규모 자급자족형 생태계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교과서 편찬 주체가 다양하며, 이는 시장의 다양성을 야기하였다. 한국은 자급자족

형 생태계와 소규모 시장형 생태계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학회와 개인이 사설한 학교는 시장의 교과서보다는 내부의 교과서를 선호한다. 이는 교과서 통일 시장을 배제한 채, 분산되고 폐쇄된 양태의 생태계를 구성하였다. 한편, 완성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는 일부 교과서들은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학교의 선택을 받아 교과용 교재로 채택된다. 다만 소규모로 유통된 탓에 전국 통일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채, 소규모 시장형 생태계로 발전하였다.

한중 양국 모두 근대 교과서 생태계를 구축하여 교과서, 학교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정부·학교·출판사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상호 긴밀한 연계 속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이는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중국은 정부의 최소화된 개입, 소비자로서의 학교의 주된 활약, 출판사의 주도적 역할 등의 조화로운 구조 속에서 생태계를 민간 시장 형태로 작동시켰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출판사의 미미한 역할, 학회 부설학교의 활약 등의 조합 속에서 자급자족형 생태계를 발전시켰다.

한중 양국의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교육의 근대화를 진척시켰다. 우선, 편찬자들이 구상한 근대기획은 교과서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 근대 국민을 양성함에 필요한 내용과 기획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교과서 생태계의 형성은 편찬자들이 기획한 근대적 내용이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데에 중요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중국에서 교과서 생태계의 형성은 교과서 출판 시장의 발전을 촉진했으며, 다시 산업화 발전을 이끌어냈다. 중국의 근대 산업화에서 교과서 생태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교과서를 둘러싼 제반 환경, 여러 주체들 사이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고찰에 집중하였는바 교과서 출판 환경을 입체적으로 고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해야할 연구과제도 남아있다. 첫째, 근대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근대 기획과 내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교과서 생태계의 구축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한중 근대 교과서 발전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학제, 학교, 근대 교과서 발전 양상에 대한 고찰 또한 필요하다. 한중일 삼국 가운데서 제일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경험이 한중 양국 근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한중일 3국의 교육 근대화에 대한 인식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셋째, 교과서 출판시장의 규모, 출판업계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는 교과서 생태계의 산업적 의미, 그것과 근대화와의 관계 고찰에서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향후 연구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參考文獻】

- 김두정, 《한국 학교 교육과정의 탐구》, 서울: 학지사, 2002.
-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 김유리, 《서원에서 학당으로: 청 말 서원의 학당개편과 근대학제의 수립과정》, 광주: 한국 학술정보, 2007.
- 김정효·이성은·정희숙·이해지·허선영,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성립》, 서울: 교육과학사, 2005.
- 孫仁銖, 《韓國開化教育研究》, 서울: 一志社, 1980.
- 孫仁銖, 《韓國教育思想史Ⅴ》, 서울: 文音社, 1991.
- 孫仁銖, 《韓國 近代教育史: 韓末・日帝治下の 私學史 研究 1885-1945》,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 愼鏞廈, 《韓國 近代史와 社會變動》,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9.
- 愼鏞廈, 《韓國 近代社會思想史 研究》, 서울: 一志社, 1995.
- 劉奉鎬, 《韓國教育課程史 研究》, 서울: 교학연구사, 1992.
-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서울: 살림터, 2010.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근대 교과서 백년, 다시 새 세기를 넘어》, 서울: 대한교과서, 2008.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상》, 서울: 일진사, 2005.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평설》, 서울: 일진사, 2013.
- 조연순·정혜영·김정준·김형목·김은희,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발전》, 서울: 교육과학사, 2005.
- 陳啓天, 車錫基·金貴聲 共譯, 《근대중국교육사》, 서울: 교학연구사, 1990.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教育學의 成長과 課題》, 城南市: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韓鍾河, 李亮雨, 安熙天, 《韓國의 教科書 變遷史》,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2.
- 함종규, 《韓國教育課程變遷史研究: 조선조 말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강설금, 〈중국 근대 교과서 생태계 연구-인문 계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金英宇, 〈韓末의 私立學校에 關한 研究Ⅰ〉, 《교육연구》, 第1輯,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1984.
- 金興洙, 〈韓國近代의 私立學校에 關한 研究: 1896~1905년을 중심으로〉, 《민족교육연구》, 제4집, 춘천교육대학교 민족교육연구소, 1987.
- 李海明, 〈개화기 교육목표와 교과서 내용과의 차이점 연구: 國語・修身・倫理 교과서 중심으로〉, 《論文集》, 第22輯, 단국대학교, 1988.

史春風,《商務印書館與中國近代文化》,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7.

蘇云峰,吳家瑩 整理,《中國新教育的萌芽與成長 (1860-1928)》,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7.

吳小鷗,《中國近代教科書的啓蒙價值》,福州:福建教育出版社,2011.

畢 苑,《建造常識:教科書與近代中國文化轉型》,福州:福建教育出版社,2010.

傅國湧,〈“昌明教育平生願”——張元濟與商務印書館〉,《西湖》,12期,杭州市文學藝術界聯合會,2006.

張運君,〈晚清學部與近代教科書的審定〉,《歷史檔案》,1期,中國第一歷史檔案館,2011.

【中文摘要】

近代初期韓國小規模自給自足型教科書生態學初探

- 以中國教科書生態學的比較為中心

A Study on Textbooks Ecosystem of the Small scale

Self-sufficiency in Early Modern Korea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Chinese Textbooks Ecosystem

姜雪今 Jiang, Xue-jin

本文的目的在於研究韓中兩國近代教科書生態學的形成與發展過程。教科書在近代教育的利益當事者及其要素之間扮演媒介作用，它包含與近代計劃相關的內容，是衡量教育發展的重要指標。當我們以教科書為中心把握近代教育的結構之際，可以對教育諸要素的相互關係作出豐富的理解。

所謂生態學研究，是指對教科書利益當事者之間的相互關係、這一關係對教育的影響、孕育生態學的環境等諸多因素進行考察的方法。以這一觀點考察近代教育，就會發現其研究具有如下的突出特點：可以具體了解近代教育的胎動過程，易於把握兩國近代教育萌芽期政府與民間的關係，有利於闡明教育的利益當事者學校、政府、生產者的作用。

西勢東漸時期，韓國與中國都將通過啓蒙與富國強兵保存國家視為己任，而近代國民的培養是兩國近代教育的共同目標所在。從第一所近代學校的設立宗旨到系統整理近代教育的學制，以及教科書的內容等，都體現這一目標。

韓中近代教科書生態學的差異在於其規模與生產-流通的屬性上。中國形成大規模單一型教科書生態學，構築出由民間出版社相互競爭並主導教科書發行與供應、而學校自由選擇教科書的結構。與此相比，韓國則出現多種教科書發行主體並存的現象，他們之間沒有形成如同中國的那種競爭關係，而他們向那些受生產主體影響的學校提供教科書的現象亦屢見不鮮。韓國近代教科書生產者可分為政府、學會、團體、個人等多種類型，筆者將其稱為小規模自給自足型教科書生態學。韓中兩國之所以出現如此差異，與二者教科書市場的規模、獨立開展近代教育的期間、引領近代教育的主體的不同等密切相關。

關鍵詞：近代教科書，生態學，近代國民，學制，自給自足型，單一市場型

Keywords : Modern textbooks, Ecosystem, Modern people, School system, Self-sufficiency, Single-market type

투 고 일 : 2017. 07. 17.

심 사 일 : 2017. 07. 19.~08. 01.

게재확정일 : 2017. 08. 16.

특유의 예리한 필치로 《況義》의 이러한 특성을 흡수하고 《況義》에 나타난 종교적 證道故事의 경직된 방식을 배제시킨 뒤, 중국본토의 寓言風格을 융합시켜 《物感》이란 작품을 완성하였다. 《物感》은 中西文學의 文化交流에 있어 첫 번째로 성공한 시범작이라 할 수 있으며 中西寓言이 상호 교류한 뒤 태어난 최초의 걸작이기도 하다. 《物感》은 寓言史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東西比較文學의 연구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초기의 經典이라 하겠다.

주제어 : 《況義》, 李世熊, 《物感》, 이습우화, 中西文化融合

8. 김월회

이 글은 만물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초연결(hyper-connection)-포스트휴먼(posthuman)시대의 도래를 앞둔 상황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기획되었다. 목하 생명과 인간다움에 대한 논의와 통찰이 다양한 매체와 언어를 통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고, 그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죽음의 문제가 놓여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주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련 연구를 활용하여 가능한 넓고도 깊게 또 높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러한 고찰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공자, 장자, 도잠과 노신이 죽음에 대해 취했던 태도에서 ‘초연결-포스트휴먼시대와 죽음’이란 주제를 궁구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을 길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공수반의 고사를 예로 하여 문명에서 기술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초연결-포스트휴먼시대, 죽음이란 화두가 생명, 인간다움과 왜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술하였다. 3장에서는 공자, 장자, 도잠과 노신이 죽음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고찰하여 이를 각각 ‘삶의 특권화’, ‘삶-죽음 회로의 바깥 지향’, ‘죽음과 놀기’, ‘죽음에 비스듬히 서기’라고 명명해보았다. 맺음말에서는 그들이 죽음에 대해 취했던 태도의 현재적 가치를 세 가지로 수렴하여 논했다.

주제어 : 죽음, 생명, 인간다움, 4차 산업혁명, 포스트휴먼, 공자, 장자, 도잠, 노신, 놀이, 비스듬히 서기

9. 강설금

본 논문은 한·중 근대 교과서 생태계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서는 근대 교육의 이해당사자와 구성 요소들을 매개하고, 근대기획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근대 교육

의 형성과정을 파악할 때, 우리는 교육 구성 요소의 상호연관성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생태계적 관점의 연구는 교과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 상호관계, 이 관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생태계를 잉태한 제반 환경에 대해 고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근대 교육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근대 교육의 태동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양국 근대 교육 형성기의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교육의 이해당사자인 학교, 정부, 생산자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세동점의 시기에 한국과 중국은 계몽과 부국강병을 통해 국가를 보존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근대 국민의 양성은 한중 근대 교육의 공통된 목적이었다. 이는 최초의 근대 학교를 설립한 건학 취지에서부터, 근대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제,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한중 근대 교과서 생태계의 차이점은 그 규모와 생산-유통의 속성에 있다. 중국은 대규모 단일 시장형 교과서 생태계를 형성하였으며, 민간출판사가 상호 경쟁하며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주도하고 학교는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다양한 유형의 교과서 발행 주체들이 병립하되, 중국과 같은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으며, 생산 주체들의 영향을 받는 학교에 교과서를 공급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한국 근대 교과서의 생산자들은 정부, 학회, 단체, 개인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를 소규모 자급자족형 교과서 생태계라 부른다. 이런 차이점이 나타난 원인은 교과서 시장의 규모, 독자적으로 진행된 근대교육 형성의 기간, 근대 교육을 선도한 주체의 차이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근대 교과서, 생태계, 근대 국민, 학제, 자급자족형, 단일 시장형

10. 이태수

본고는 最近 發見된 古文獻 《忠義直言》에 出現한 複音節 語彙 “言說・說道’・‘根隨’・‘使著’・‘欲要・欲待・待要’”를 中心으로 그들을 構成하고 있는 語素인 單音節語 “言・道・說’, ‘根・隨’, ‘使・著’, ‘欲・待・要’”등이 同時에 并存하여 쓰이고 있는 言語 現象을 研究한 論文이다. 複音節語는 古今(新舊) 單音節語 中 同義語가 并列로 連用되어 生成된 어휘로 數量 面에서 볼 때 單音節語보다 少量 使用되지만 漢語史의 側面에서 볼 때, 이들은 文・白 代替期에 古今의 文語와 白話 語彙들 間의 接觸에 의하여 生成된 言語 融合 形態의 중요한 사례로서 본고는 이들 語彙를 통해 交替時期의 모습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重要的 意味를 지닌다.

주제어 : 忠義直言, 同義語, 連用, 竝用, 動詞, 語言接觸, 語言融合, 古今詞